

# 9월의 사양관리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



## 일반 사양관리

**무**더웠던 8월을 보내고 아침 저녁 선선한 날씨가 계절의 변화를 실감나게 한다. 지난 달 땀 흘려 수확한 옥수수사일리지 관리를 잘하여 빗물이 새어 들지 않도록 하고, 답압을 위해 눌러둔 타이어 등은 제대로 얹혀 있는지를 점검한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하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람위주가 아닌 가축위주의 환경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고 착유실에서는 소에게 안락감을 주고 착유자의 안정된 착유습관을 위해 클래식 음악을 제공하며 우사시설은 가장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급수, 급이

시설 및 환기시설을 제공하여 건물섭취량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

가축개량은 체형과 경제적 생산수명을 연장하여 두당 수익성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목장의 전반적인 환경과 축사시설 등을 점검하고 경영 및 사양계획을 점검 수립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개체별 유량, 유지율, 번식기록, 질병경력 등을 분석하며 개체별 산유능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방역 및 위생관리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허약해진 젖소를 개체별로 진단을 실시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젖소의 주요 도태 원인은 유방염, 번식장애, 분만 후 대사성 질병, 발굽질환 등일 것이다.

이 높은 고능력우, 특히 분만 직후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미량 광물질을 보충 급여하는 것이 번식능력을 극대화하는데 필수적이다. 발굽병은 여러 원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주로 부상 및 축사의

상태, 정기적인 사제 미 실시, 창상 및 감염, 불균형적인 사료급여에 따른 단백질 과다 등이다.

발굽병은 번식효율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발굽병에 걸린 소가 번식효율이 매우 저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발굽병으로 인한 두당 평균 유량감소도 20~50%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정기적인 발굽사제와 관리가 중요하다.

## 사양관리

여름철 더위스트레스로 인해 줄었던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산유량이 늘어나며 체중이 증가하므로 사료 급여 수준을 검토하여 충분한 건물섭취량과 균형적인 영양이 공급되도록 한다.

특히 여름철 더위스트레스에 따른 사료섭취량 저하 방지를 위해 에너지 농도 증가와 미량광물질 추가 급여 등으로 배합비를 조절해 주었던 것을 식욕의 회복으로 건물섭취량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급여하던 사료급여 수준에 대한 분석, MUN 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의 배합비로 조절하여 산유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여름철 저조했던 번식활동이 체중증가와 함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이므로 적기 발정 발견과 적기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수태당 증부횟수를 줄이는데 힘을 쓴다. 분만 후 자궁회복과 번식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만 후 비유 초기에 조·농 비율을 농가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고영양분, 고에너지 사료를 급여하여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섬유소 함량은 15~17%가 유지되도록 하며 빠른 시간내에 건물섭취량이 최대가 되도록 해준다.

또한 산유능력검정사업에 참여 보유한 개체의 능력을 파악하고 젖소 혈통등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체형심사 및 교배계획에 의하여 근친교배가 안 되도록 정액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젖소 개량을 실시하여 고능력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 있는 목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다.

## 초지 및 사료작물

일 동용 추파작물은 적기에 파종되도록 준비하여 파종한다.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유채나 연맥은 9월 초순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호맥 등 월동을 하는 작물은 중순경에 파종하여 수확량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가을철 목초파종이 늦어지면 어린 목초의 겨울나기가 쉽지 않아 동사하기가 쉬우므로 9월 초순을 넘기지 않도록 하여 목초가 충분히 성장한 다음 월동할 수 있도록 한다. 파종시에는 복토와 진압을 철저히 하여 종자의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토양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초지가 있는 농가에서는 초지조성 및 보파갱신을 조기에 완료하여 월동에 따른 생존율을 높인다.

목초를 수확하여 급여할 경우 이슬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풀은 되도록 오후에 예취하고 이슬에 젖은 풀은 말려서 급여토록 한다. ☹

